

# 건축사가 돈 버는 방법

How to Earning Money

李昌男/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책방에 들러본다. 경제관계 서적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왜들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일까?

오래된 책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자신 만만한 머리말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세상 모든 경제관련 서적은 돈을 벌해보지 못한 경제학자들이 쓴 것인데 반하여 이 책은 엄청난 돈을 번 자신이 쓴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건축설계” 업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더구나 배고픈 건축사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구조장이” 얘기는 나올 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이 “돈”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체념한 채 바보처럼 구조계산 업무만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 단 하루도 굶어 본 적 없고, 옷이 없어 벗어 본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요즘 누구는 밥 굶나?!! 돈은 못 벌어 봤지만 고급 자동차도 있고 넓직한 아파트도 있다. 누가 봐도 가난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이 쓸데 없고 멍청한 소리를 무엇 때문에 잡지에 까지 쓰고 있을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건축사님들을 가까이서 보아온 바 너무나도 많은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설계비 중 몇 %를 구조계산비로 지불했는지? 그 엄청난 설계비를 어디다 뿌렸길래 자가용 비행기도 없이 째째 매는 것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 보다 10배 100배 좋은 조건의 건축사들이니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꾸려 나가는 나의 모습을 눈여겨 본다면 그것이 “돈 버는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몇년 후 사게 될 건축사들의 자가용 비행기에 편승할 영광을 기대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본다.

## 1. 사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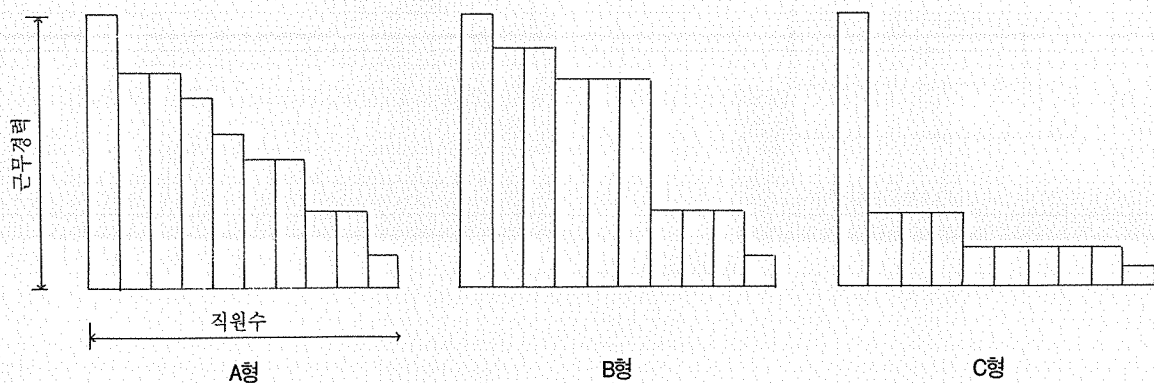
수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또는 컸다가 줄어드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중 쓰러진 사무소들 대부분이 잘못 만난 건축주, 경기 침체, 건축사의 무모한 도전이나 도덕성의 결여, 주변환경 여건 때문의 불가피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근본 원인을 하나로 묶으면 역시 “사람”이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에는 몇 가지 “형”이 있으나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소에 많아야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다. 누가 “믿어 주세요”라고 했지만 믿음은 구호나 강요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느 사무소 직원들의 근속년수 통계표를 그 회사의 실력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A형 사무소는 오래된 사원과 신입사원의 구성이 보기 좋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경력이 풍부한 사원이 신입사원을 지도하여 기술을 전수시키고 오래 전에 시행했던 일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일을 맡아 일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고 발전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매우 생동감이 있고 안정된 단체라고 평가된다.

B형 사무소는 역사가 있으면서도 일 처리는 잘 안되고 이름 값을 못하는 늙고 시들은 사무소이다. 일은 못하면서도 과거를 되씹으며 몇 안되는 직원들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는 양로원형이다. 경상비가 많이 들고 가망이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형은 주로 새로 생긴 사무소인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험을 걸고 일을 시켜야 하는 위험한 형태이다.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일 처리할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하면 실수와 사고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아원형 회사이다. 그러나, 만약 소장이 정신차려



건축사사무소의 근속 년수 통계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성실하게 일하면 장래가 있는 사무소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A형 사무소가 방심하는 사이에 B형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무소가 C형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오래 간만에 들러 본 사무실에 낯익은 직원이 많은 회사는 건설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회사 이름만 같을 뿐 사람은 전혀 다른 새 사람들로 물갈이 된 회사는 실력이 별 볼 일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회사는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만년 C형일 수밖에 없다. 심하게는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2년인 회사가 있으니 거기서 무슨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들을 본다. 여기 저기에서 경력사원들을 스카우트해서 직책도 올려주고 월급도 더 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그 조직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사무소에는 색깔이 필요하다. 어느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냄새란 마치 가정집을 예방했을 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신발이 가지런하고 화장실이 깨끗하며 아이들의 인사성이 예의 바르면 그 집안의 됴됨을 알게 됴와 마찬가지로.

이제 "A"형 사무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사람은 돈 주고 사다 놓은 Computer와 다르다. 제 아무리 "A"형 사무실로 키워 나가고 싶어도 나간다는 사람을 주저 앉힐 수는 없다.

대기업과 달라 번듯하게 이름이 나 있는 것도 아니니 무슨 다른 매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제대로" 방법이 있을 뿐이다.

가. 월급은 제 날짜에 : 남 보다 많이도 못주는 주제에 그 월급에 매달려 사는 직원과 식솔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구조 사무실을 개설한 지 22년간 264회의 직원 봉급과 약속했던 상여금 퇴직금 및 사무실 관리비를 단 하루도 밀려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나.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 휴무 엄수 :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잠 잘 때 자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창조되었다. 아무리 바빠도 "철야"란 있을 수 없다. 철야는 신체를 망치는 독약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밤 10시까지(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야근이다. 법정 공휴일은 절대로 휴무다. 바쁘다는 건축사 사무소에 가 본다. 늦게 출근한 사람이 야근을 좋아한다. 야근한다면 식사에서 시간 보내고 차 마시러 다니며 심하게는 당구, 볼링치다가 사무실에는 잠깐만 들리는 야근 풍토에서 무엇이 생산될까? 다음 날은 전날의 철야, 야근 때문에 당당하게 지각한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 모르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대신 절대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사무실 환경 조성 :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꾸며야 한다. 최소한 앉는 자리라도 안락해야 하고 작업 공간도 부족하지 않아야 함은 상식이다. 냉난방, 조명 및 컴퓨터 등 작업에 필요한 각종 보조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복사기나 Faxmile은 물론이고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일하는데 짜증날 요인을 될수록 제거해야 한다. 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돈을 투자하여야 하나 그것을 미루다가는 "A"형으로의 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라. 금주·금연 : 술, 담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반문하겠지만 특히 담배 냄새 때문에 직장을 바꿔야겠다고 호소하는 직장인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넓지도 않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뿔뿔대는 자욱한 연기, 호흡장애와 따가운 눈을 참느라 피로가 가중된다. 술 마신 다음 날 흐리멍덩한 머리로 무엇이 옳바로 해결될 것인가? 가끔이기는 하나 화재와 폭발사고의 원인 중 담배가 주범인 것이 몇 %나 될까?

마. 권위 의식에서 벗어남 : 소장은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야 하고 돈은 경리직원이 주고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장이 회의 참석하고 돌아가는 편에 돈을 보내거나 무슨 서류를 건네주면 위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운전 기사에게 들려 보내도 실례로 생각한다. 유니폼 입은 여자 경리직원을 태우고 가서 건네 줘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

사무실 규모에 걸 맞지 않는 소장실의 크기와 화려함, 눈치만 슬슬 보는 직원들의 주눅들음에서 경직된 비합리가 보인다. 심하게는 운전 기사가 문을 열어 주어야 내릴 줄 아는 귀족 체질(건축사 중에는 없겠지)도 있다.

이 같은 비능률과 낭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 외국인들의 사무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운전 기사가 따로 없다. 커피는 스스로 타 마시고 허드렛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우리는 어떤가?

운전 기사는 운전만 하고 세차는 세차장에 가서 주간지 보는 동안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 우리 젊은이들이 구두나 닦고 주차관리, 때밀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국 연변, 필리핀 사람들이 3D 작업장에 동원되어 달러를 벌어가고 있다.

바. 철새 집결소 : 일이 조금 바빠졌다고 경망스럽게 사람을 대폭 늘이는 사람은 일 떨어졌을 때 책임없이 내 보낼 수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사탕발림이 능숙한 사람은 끝에 밧질질도 잘하는 것이 만년 C형 사무실 소장들의 공통된 습성이다.

사무실에 일이 계속 연결되어서 잘 굴러 갈 때는 신바람이 난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빈둥거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불평이 나오고 한 눈을 팔게 된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활력도 떨어진다. 이 때 실력이 모자라는 직원은 Stress를 받아 자리를 내 놓게 되고 그것을 본 잔여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진다.

## 2. 조직과 제도

구조 Consulting이라는 특수 직업을 갖고 있는 나는 제법 많은 사무실과 거래를 한다. 조직이나 제도는 일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위직 인사와의 일 과정에서 흑사라도 실수한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을 모색할 때 흔히 보는 경우가 재미있다.

분명히 A라는 방법으로 수정하면 그 업체에 큰 이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위직 당사자의 실수였음이 상부에 알려 질 가능성이 있으면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

하위직 직원의 행위를 탓하기에 앞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상관의 경영방침을 문제삼는 것이다.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업무 수행에만 신경을 쓰는 수가 있다. 따라서 행정적인 뒷처리가 서투르고 그 때문에 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업무 수행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규모가 커진 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기술진과의 진지한 연구 끝에 성공적인 일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용역대금 신청, 수금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 그 후로는 거래를 포기하거나 이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관청에서도 차츰 서류를 간소화하는 마당에 어떤 단체에서는 오히려 점점 그 절차와 서류 갖춤이 복잡해 감을 볼 수 있다.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꾸러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 설계사무소이니 경직된 조직은 금물이다. All Coat Pressing이라야 한다.

### 3. 적재적소

사람이 아무리 우수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그 자리에 걸 맞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떤 회사는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도 훌륭하게 꾸러 나가는데 소위 K.S. 마크와 박사가 수두룩한 데도 찌그락 찌그락 소리만 나는 것을 보게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약간 벽찬,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다. 6.25후에는 은행 창구에도 일류 대학 학생들이 앉아서 일했으나 지금은 여자상업학교 출신들이 잘 해 내고 있음을 본다.

우리 사무실의 예를 들어 보자. 오래 전 Saudi 특수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건축구조 전공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계의 원리와 기초수학 문제를 가지고 직원 채용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즉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과 인문계, 상업학교 등을 가리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의외로 변두리 여자상업학교 졸업생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되어 입사 후 오늘 날까지 훌륭하게 재구실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살려 그 후배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

자기 일이 재미가 있어서 별도의 취미생활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자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장구나 바둑, Go-Stop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잘 흐르며 일하는 과정에서의 Stress를 풀기 위한 술 한 잔이 필요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어려서 가장 싫어했던 심부름이 설새 없이 원형운동을 하는 연자방아 소몰이였다.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장작패는 일을 택했던 기억이 난다. 장작은 나무의 결을 관찰하여 도끼의 날을 어느 각도로 어느 만큼의 속도로 내려쳐야 쪼개질 것이라는 머리 놀림이 필요했지만 소몰이는 냄새나는 소 궁둥이를 쫓아 다니며 같은 속도로 하염없이 땀도는 지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당시 서울대학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화공과 친구들이 근무하는 울산 정유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3교대로 계기판 앞에 앉아 휘발유와 중유 등의 생산량 눈금을 보고

조절하는 단순 작업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며 따분하고 지루하여 주말마다의 등산이나 테니스마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푸념이었다.

지난 번 오래 간만의 Home Coming Day에서 만난 그 친구의 직업이 화공과하고는 거리가 먼 해운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 특히 암기식 입시교육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학교와 전공과목을 배정받은 학생들이 재미없고 기계적인 암기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도 많다.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했을 당시 어떤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 기사 모집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시험이 너무 쉬워서 문제없이 합격했는데 예를 들면 시험지 꼭대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놓고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1,000개 그려 넣으라는 식의 문제들이었다고 한다. 운전 기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동안, 그것도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운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여기고 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그 직업에 맞는다는 뜻이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주부가 있다. 손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건축사무소는 각 분야에 손 맛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 되기가 무섭게 지켜왔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며 손 씻고 나가려는 사람, 부여된 일도 마치 못해 하는 사람은 우선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애비를 닮아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더니 공과대학에 가겠다고 결정했었다. 학교에서 시행한 간이 적성검사에는 이과도 좋고 문과도 좋다는 결론이어서 본인 희망대로 이과를 지망했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위한 심도 깊은 공부를 하다보니 수학, 과학 분야에서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공부에 부담을 느끼고 싫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정밀 적성검사를 받아 보게 한 즉, 의외로 문과 분야가 압도적인 강점으로 나타나서 전과하고 말았다.

평생을 두고 재미 없는 일에 매달리게 할 뻔 했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20여년전 서독에서는 대학 입학 위한 적성검사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은 바가 있다. 당시 서울문리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갔던 한국 청년의 말이다. 고향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유학가서 독일어 공부를 계속해 보았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우리 나라의 이두문자 같은 독일의 고어(古語)등, 배워봐야 전혀 필요하지 않음직한 과목들에 회의를 느끼고 지도 교수에게 상담한 즉 정밀 적성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역시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수 많은 문제에 답하고 난 결과 적성은 기계과인데 참을성이 없어서 Civil Engineering으로 전과 하라는 것이었다.

독일이 전공자에게 토목과라니요? 걱정말고 6개월 간의 기초 훈련을 받으면 전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도 교수의 지시대로 전과하여 보람된 학교생활을 마치고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자인 교수의 신임을 받는 Engineer로 성장한 것이다. 음치에 가까운 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고상을 앞에 놓고 수 없이 반복 연습했던 특정 각도에서의 그림을 그려서 시험에 합격해 놓고는 전혀 진전이 없는 미술학도가 양산되고 있다. 대학 입학 수험시험 문제는 더욱 가판이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들 중 몇 문제가 전에 풀어 보아 답까지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생의 손놀림이 얼마나 재 빠르니 마치 옛날 과자공장에서 봉지를 싸는 것 같다.

그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중 혹시라도 창의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반복된 일에 매달려서 세월 보내는 분이 있을까봐 장황한 설명을 해 보는 것이다. 설계사무소는 제조공장과 다르다. 따라서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 적성이 맞는 사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리 바꿈을 해야 후회가 없을 것임을 말해 두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극히 곤혹스러운 일인데 규모가 큰 사무실이라면 이 같은 직원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System을 바꾸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 4. 머리놀림

부엌기구 전문업체인 어느 창업사장으로 부터 들은 얘기이다. 같은 매출액을 올리는 동종업체(종업원 1,300명)와 달리 800명으로 잘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본 말로 “단도리”(작업준비)를 제대로 해 주느냐 그렇지 못해서 “네마치”(기다린 손실)가 나느냐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는 잘 알 것이다. 요즘 인건비가 급속히 올라가자 그 반면에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최근의 우리 사무실에 “합리적인 공사기법 용역”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나 보다 머리도 좋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문 받으러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 있으면 마지막이나 하고 술 마시는 그 시간에 이것 저것 궁리하는 습성이 있는 관계로 별 것 아닌 작은 공법 개발이 가능하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머리놀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부엌기구 사장의 두 번째 얘기를 옮겨보자.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외국산 재료를 써서 만든 상품이 아주 비싼 값에 내 놓았더니 의외로 날개 돌힌 듯 팔리더라는 것이다. 제품의 질은 차이가 없고 국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서 양념으로 내 놓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치풍조, 과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네 생각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본과적인 불합리성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설계에 중사하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도 일본사람에 맡겨야 적성이 풀리고 이제는 막 일꾼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니 딱 하지만 하다. 글썽 사우드처럼 노다지나 평평 쏟아진다면야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쨌든 머리놀림은 자다가 갑자기 Idea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설새없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S건설회사는 거꾸집에서 부터 철근배근, 창틀과 유리 규격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는 생각을 한 결과 지금은 임대 아파트 분야에서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싼 값으로의 공사를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스티로폼 공장, 철골공장, Unit Bath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비수기에 싼 값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했다가 자재 파동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는 소리없는 재벌로 성장했는데 이는 창업자인 S 회장의 끈질긴 머리놀림에 기인한 것이다.

머리놀림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항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위협에 부딪쳐도 쉽게 피하는 것을 보듯이 하다 못해 수도꼭지 트는 방법이나 바지 작크 채우는 작업에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행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런 머리놀림에 둔한 직원의 의자와 책상 서랍은 남들 것 보다 빨리 고장난다. 머리놀림에 능한 주부는 같은 시간에 그릇도 깨지 않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끝내지만 그렇지 않은 부인은 항상 바쁜데도 지저분하다.

땅도 좁고 부존 자원도 없는 터에 사람만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길은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놀림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하겠다.

#### 5. 분위기조성

어른들은 연속극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옥박지르는 것은 효과가 없다. T.V. 채널을 돌리는데 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말장난하는 난장판이다.

과소비가 어떻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신청하지도 않은 신문을 강제로 뿌린 다음 요금을 강요하는 일간신문들, 일간스포츠와 연예계 스캔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온통 별거벗은 여자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공부하고 검소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옛날 중·고등학교는 각각의 특성과 전통이 있었다. 그 분위기는 한 두 사람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된장, 간장, 설렁탕, 떡배기처럼 깊은 데서 배어 나오는 떫과 맛이다. 우리들의 일터가 분위기를 차분하게, 머리놀림에 지장이 없도록 변화시키는 믿음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감히 바라는 바이다.

#### 6. 약속이행→소심함, 째째함

가. 지불약속 : 약속은 안할수록 좋다. 약속을 어길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때로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해도 될 약속을 만들기도 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을 빌렸다가는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여러 번 그 짓을 하다보면 신용을 얻게 되고 그 신용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빌려 가지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대범하고 호탕하다.

대기업으로 자라난 모 회사도 초기에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소문나 있다. 하청업자들에게 일도 주고 지불도 제대로 해서 신용을 얻어 놓은 다음 어느 시기에 그 하청업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납기에 많은 물량을 주문한다. 물론 견본을 제시하라고 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청업자는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부탁해서 빚을 얻어서는 기계를 사 놓고는 무리하게 밤샘 작업을 하며, 의뢰자는 제품의

균질성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납품을 받지 않겠노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란다.

털미 잡힌 하청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의뢰자에게 매달리고 못 이기는 척 혈값에 인수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공장을 담보로 잡아 몇개월 후에는 자기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같이 한시적인 “신용”을 이용해서 남긴 것은 번 돈이 아니라 빼앗은 돈이니 “돈 버는 방법”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약속 이행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호기있게 장미빛 약속을 남발한다. 조심할 대상이다.

약속 이행을 습관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수표”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그게 소심하고 제책한 사람들의 공통된 성품이다. 대범하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이다.

제목이 “돈 버는 방법”인데 초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역시 두뇌 회전이 빨라서 진짜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건축설계를 때려 치우고 “장사”로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지금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잘 하면 대통령에도 출마해 볼 수 있고 사정 바람에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큰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등 따시고 연말에 약속했던 상여금 부담없이 지불할 수 있고, 빌리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시민적인 “돈 버는 방법”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인가? 그냥 통째로 삼켜봐야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호기있게 써 본들 몇 날 갈 것인가?

소심하고 제책하고 신용이 있다고 인정되면 모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유능한 협력업체들이 비싸지 않은 용역비를 받으면서도 즐겁게 컨설팅을 해 준다. 따라서 하자 발생률이 적어지고 설계 도서의 질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는 사무실의 신용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유능한 직원들은 다소 썩 급여에도 참아주며 각종 사무집기, 문방구, 도서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매를 현찰 박치기로 함에 따르는 가격 인하가 도움이 된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참는 버릇이므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낭비벽이 없어진다. 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미리 준다고 덧나나? 우리 사무실에는 외상이란 단어가 없다. 돈 받으러 한 번 더 오게 하는 수고를 덜어주자.

나. 시간약속 : 소심하고 제책한 사람은 시간약속을 비교적 잘 지킨다. 나는 시간을 소중히 알며 자기 시간도 아낄 줄 안다. 어찌된 셈인지 건축사 사무소의 출근 시간은 대체로 높다. 늦으막 하게 나와서 커피 마시고 잡담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참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나태와 무질서로 이어져서 낭비로까지 정착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무시한 절약은 있을 수 없다.

두 번 갈 일을 한 번으로 줄이고 두 번 회의를 1번에 끝내면 50%가 남는다는 초등 “산수”를 무시하다가 깊은 늪에 빠지는 것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시간이기는 하나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에 갔는데 정작 회의 소집한 사람이 행방불명인가 하면 뒤늦게 나타나서는 사과할 줄도 모르는 자가 돈을 번다면 뭐가 좀 잘 못된 것이리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도와 주고 싶고 설사 조금 실수해도 양해해 주고 싶은 법이다.

유난히 회의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관련 없음직한 사람까지 모아 놓고 연설인지 지시인지 자기 말만 늘어 놓는 고위층이 있다. 전화 걸 때마다 회의중이라 연결이 안된다는 것을 보면 모든 일에는 회의가 최우선인가 보다.

회의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인원만 모여서 토론시켜야 효과가 있다. A, B, C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Amy Briefing Chart란다. 군대란 원래 생산없이 소비만을 위한 집단인데 그 곳에서 배운 것을 생산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자니 돈이 엉뚱한데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 출근시간은 8시30분이다. 만약 설계사무실들과의 통신에만 문제가 없다면 아침 7시 정도로 당기고 싶다. 상쾌한 아침, 교통시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전 후에 출근하여 사무실 문 열어 놓고 하루 일을 계획한다.

## 7. 절 약

낭비가 습관화, 체질화하면 낭비벽 환자가 된다.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 1인당 싸인펜 소모량을 통계낸 결과 한 달에 자그만치 6개씩 이었다던가? 그래서 이름 쓰고 받아가게 한 결과 소모량이 1/4로 줄었다는 것이다. 사무실 Logo가 인쇄된 깨끗한 종이에다 연습 그림을 그리다가 하면 청사진 포장지로도 활용한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앞의 전등 끄는 직원 모습 찾기가 어렵고 화장실에 가면 수돗물을 최대한로 틀어 놓은 채 어디론가 사라진 청소부 아주머니 나무라는 사람 없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까불던 시대의 습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소비가 미덕인지는 몰라도 낭비는 최악이 아닐까? 이 세상을 나 뿐만 아니라 남들과 공유해야 하며 모든 자원을 우리 자손들도 써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낭비벽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청소부) 인건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니 답답하다.

## 8. 행정 절차의 간소화

월말이면 교통량이 급증한다. 추석 때나 연말이면 더욱 심하다. 그 교통량 증가의 원인 중 견적서,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등 서류 준비, 제출 때문에 부담하는 간접비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시세·국세완납증, 결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때로는 보증보험에까지 가입하란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로부터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이 또 늘어났다. 계산서, 입금표가 생략되는가 했더니 자기들 결재과정에서 필요하단다.

오죽하면 이런 번거로운 서류 챙기기가 싫어서 외형이 적은 일은 아예 꺼리게 된다. 그래서 국세청, 청와대, 민주자유당에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채로 기다리는 중이다. 영수증은 은행 송금증으로 대체해도 되겠지.

신임 내무부장관의 임기내 숙원사업으로 민원인 1회 방문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정부에만 그같은 간소화 시책을 요청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부터 행정 간소화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급여 조정 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수정 적용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든 편리할 것이다.

현재 모 공공기관 건물의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조설계 하는데 무슨 비밀사항이 있는지 서약서와 함께 신원진술서를 써 내란다. 여권 신청할 때 써본 것 같은데 무려 47개 항목의 빈 칸을 채워야 하며 그것도 5부를 복사하지 말고 일일이 써야 된다니 이게 무슨 미개한 사회의 행태인가? 여권을 가지고 이 Project를 위한 단체 여행도 했던 사람이면 이미 신원 증명은 된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발자국을 모습이 전부 나타나도록 Computer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 같은 번거로운 일에 시간을 낭비시키는 걸까?

## 9. 촌지 없애기

정사협(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집행위원장 손봉호 교수는 사회 각계의 촌지 추방 운동을 공포했다. 필자는 이같은 운동을 남에게까지 중용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는 지나치리 만큼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한다. 심하게는 아예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조차도 보내지 않는다.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는데도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미안해 할 줄도 모르게 됐다. “촌지”가 극히 특별한 경우, 예컨대 나에게 너무나 친절했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켰을 때 순수한 뜻에서의 구두표 한 장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로 인하여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추호라도 있음직하면 삼가는 것이 철칙이다. 그렇게 하면 일이 떨어진다고 수없이 경고를 받았으나 날이 갈수록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세상은 밝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환 안 보내기, 청첩장 안 보내기를 법제화 한다고 하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창립 당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 10. 적절한 포장

과대 포장도 문제지만 지나친 절약도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잘 보이지 않는 복사, 맞지 않는 철자법은 신빙성을 감해준다. 지나친 사무실 Brochure, 남의 작품까지 자기 것인 양 선전하는 비도덕성도 보인다. 사무소 개업식은 왜 그렇게 요란해야 하는지? 호화 결혼식 비용으로 빚지는 신혼부부 같아 보인다.

## 11. 사무실 위치

교통 문제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짚은 이사는 삼가는 것이 유리하다. 가능하면 전화번호까지도 고집스럽게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손님들이 찾아가기 쉽게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고 지하철

근처라면 더 할 나위 없는 조건이겠다. 몇 년 만에 전화 걸었는데도 그 사무실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반갑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요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사무실 이름과 Logo를 쉽게 바꾸는 것을 보는데 내용의 변신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사가 짚은 사무실은 마치 옮겨 심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정원수 같아 보인다.

## 12. 정찰제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서는 비싸게 판다. 1년 내내 Sale 한다고 법석이니 그게 그거이기는 하나 그래도 정찰제라는 것이 신빙성의 근원이다. 상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설계비가 다르다면 뜻대기 시장과 다를 바 없다. Dumping은 금물이다. 제 살 깎아 먹는 멍청한 것이다. 돈을 적게 받으면 정성이 빠진다. 정성이 빠지면 질이 저하된다. 그 값이 그 값이다. 적게 받으면 고급 제품도 천해진다. 쓰는 사람이 곱게 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설계비도 Dumping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로 돈 벌 수 없는 조건이다.

건축설계 사무소도 허덕이는 터에 좋게 말하면 협력업체, 나쁘게 말하면 하청업자, 그것도 가장 영세한 구조장이다. 특별한 배경도, 백도 없고 직원 중에는 K.S.마크도 없다. 소장이란 사람은 인사성도 융통성도 없어서 술 한잔 사는 일 없고 연하장 한 장 보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나 일 달라고 머리숙여 본 적이 없다. 머리는 지독하게 둔해서 화투 짝도 못 맞추고 고객의 이름은 물론이고 때로는 다른 사무실에 갖다 줘야 할 구조제안서를 들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은 그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일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수행 능력보다는 남아 도는 일감으로 고민한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용역비를 싸게 받지도 않으며 이른바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다.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커닝, 주로 여의도에 버티고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기술을 제공한다.

왜 그럴까? 게으른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받을 깊이 파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필자는 이 사실을 특별히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원인을, 하찮은 작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는 하나 만약 내가 여러분(건축사사무소)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쯤 아마도 150명은 넘는 보조원과 같이 신나는 건축활동을 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자사 빌딩에 자가용 비행기 타고...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저절로 큰 일이 굴러 들어옴을 확신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선량한 건축사님들”의 지원이 그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돈 버는 방법”을 써 보았다. 내 모습을 지켜 본 우림콘크리트 사장은 나에게 샴 바느질꾼이라고 명명했다. 돈 벌었으니 재봉틀 하나 바꿔야지.

정식 올림픽선수숙적인 건축사들에게는 관심 밖이겠지만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다. 소아마비 금메달에 눈길을 보내는 심정으로 스스로 동정어린 찬사를 보낸다. 나의 사랑하는 14명의 센 구조 식구들과 함께...